

제임스 조이스 창작미학의 세속성 —육체와 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 강 훈

1. 서론

조이스의 작품들, 특히 후기 작품들인 『율리시스』(*Ulysses*)와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는 서술기법과 언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견 엘리트주의처럼 보이는 조이스 예술의 핵심은 사실 일상성과 세속성의 고취에 있다. 흔히 “조이스성”(Joicity)으로 표현되는 그의 희극성도 추상적 가치와 단일한 정신적 원리보다는 현실세계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언어와 스타일상의 실험도 삶과 세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속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러한 태도는 조이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성적 이미지들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율리시스』는 주인공 블룸(Bloom)의 배변으로 시작해서 여주인공인 몰리(Molly)의 생리로 끝나며, 각 장마다 수많은 육체적, 성적 이미지들이 가득하다. 『스포팅 타임즈』(*The Sporting*

Times)에서 『율리시스』가 “화장실 문학을 전공하는 변태 정신병자의 작품”(Bolt 148)이라는 모욕적인 평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조이스 문학 전반에 흐르는 세속성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인간을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물질적 조건에서 바라보았던 조이스에게 인간의 육체는 모든 미학적 가치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였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인간의 육체는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며 또한 그의 미학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더블린사람들』(*Dubliners*)의 구성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일생을 암시하며, 『율리시스』의 각 장의 서술스타일들이 인간 신체의 각 부위와 그 기능을 암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피네간의 경야』에서도 육체의 지형학은 그대로 이어진다. 보시넬리(Bosinelli)에 따르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하우스 언덕은 『피네간의 경야』를 “꿈꾸는” 전설상의 거인, 핀 머쿨(Finn MaCool)의 머리에 해당하며, 이스트머스는 목, 피너스파크는 그의 다리에 해당한다(125). 게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전반부에 많이 등장하는 시각, 촉각, 후각 등의 묘사는 언어와 그 지시대상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인식론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주인공 스티븐(Stephen)의 예술인식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육체와 성의 이미지들은 세속성이라는 그의 미학적 지향점뿐만 아니라 독특한 그의 창작이론을 암시하기도 한다. 조이스의 작품에는 문필가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더블린사람들』에서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의 주인공인 더피(Duffy)는 워즈워스(Wordsworth)와 니체(Nietzsche)로 가득한 서재에서 문필가를 꿈꾸며 「죽은 자들」(*The Dead*)의 게이브리얼(Gabriel)은 저널리스트이고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리틀 찬들러(Little Chandler)는 시인 지망생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예술가 지망생의 예술적 기질과 인식의 형성과정, 독자적인 예술관의 추구과정을 어느 작품보다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율리시스』도 예외가 아니다. 휴 케너(Hugh Kenner)는 『율리시스』를 “읽고 쓰는 문제에 대한 소설”이라고 평하고 있는데(148),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무엇인가를 읽거나 쓰는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스터」(*Nestor*)의 학교 장면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책을 읽고 있으며, 「프로테우스」(*Proteus*)에서는 스티븐이 바닷가에 널린 사물들을 “읽고 있다”. 「칼립소」(*Calypso*)에서 블룸은 카드, 포장지를 읽으

며 아침 찬거리를 산 후 화장실에 앉아 “티빗”(Titbit)을 읽으며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후 펜팔 친구인 마사의 편지를 읽는다. 「에올러스」(“Aeolus”)는 신문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킬라와 카립디스」(“Scylla and Charybdis”)의 도서관 장면에서 스티븐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창작 모티프를 분석하고 있다. 창작에 대한 모티프는 『피네간의 경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자신의 소변을 잉크에 비유하는 문필가 쉘(Shem)의 이야기는 창작과정에 대한 비유로 가득하고, 암탕인 비디(Biddy)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편지는 문자(letter)와 쓰레기(litter) 사이의 어원적 연관성을 통해 조이스 예술의 물질적, 세속적 속성을 암시한다(Cheng 85).

흥미로운 것은 조이스의 창작이론이 대체로 육체와 성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예술이 “처녀의 자궁 속에서 언어가 육체로 변화”(P 217)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임신과 출산에 비유되는 스티븐의 창작이론은 그의 예술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체의식”(Eucharism)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스티븐이 공언하듯이, 예술이 “매일 매일의 경험이라는 빵을 영원한 생명의 빛나는 육체로 바꾸는 의식”(P 221)이라면, 육체는 곧 모든 예술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인 구현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과 육체의 이러한 관계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문필가인 쉘이 자신의 분비물을 잉크로 삼아 자신의 피부에 글을 쓰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FW 185.14-26). 조이스에게 육체는 예술 창조의 조건이자 결과물이며 육체의 생리적 기능은 창작과정을 암시한다.

사실 조이스의 이러한 미학적 입장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예술가의 정신적 성장과 인식,” 『더블린사람들』의 “양심” 또는 “정신적 마비,” 『율리시즈』의 난해한 기법과 『피네간의 경야』의 “꿈의 언어”와 “역사순환” 등 초기 비평가들이 주로 다루었던 정형화된 몇몇 주제와 이미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측면이 있으나 육체와 성에 대한 담론이 풍성해진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육체의 창조성

조이스 작품에서 육체와 성의 이미지는 조이스 예술의 세속적 성향을 보여주

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율리시스』에 빈번히 등장하는 소화와 배설의 이미지는 삶의 일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율리시스』는 “인간에 대한 찬미”라는 틴달(Tindall)의 주장(43)이나, 조이스의 예술과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이 성에 바탕을 둔 인간성이라는 문제에 독특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브라운(Brown)의 주장(153) 등, 기존의 비평가들이 삶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조이스의 휴머니즘으로 연결시킨 것은 옳다. 실제로도 조이스의 육체와 성은 작품의 구조와 주제를 구성하는 중심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조이스 자신의 창작이론을 암시함으로써 그의 미학적 지향점을 직접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예술가의 의식의 성장을 다룬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조이스의 초기 창작이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도 육체와 성, 특히 여성/여성성 문제는 예술가로서 스티븐의 성숙과 창작원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술적 창조에서 육체와 성은 영감의 원천이며 창조의 과정이고 그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어린 스티븐이 성모와 상아탑의 비유에 나타난 언어와 상징의 관계를 처음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아일린(Eileen)의 “하얗고 가늘며 차갑고 부드러운 손”(P 36) 이 촉발한 육체적, 성적 감각이었으며, 해변가 소녀의 모습에서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는 유명한 에피피니도 소녀의 “길고 가느다란 벌거벗은 다리,” “상아처럼 부드러운 빛깔의 허벅다리”에서 출발한다. 예술적 영감과 창작과정을 육체와 성에 비유하는 장면은 이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스티븐에 따르면 예술은 “자신의 고막을 자극하는 목소리”(SH 31) 또는 “거리의 소음”이 “상상력이라는 처녀의 자궁 속에서” “육화”(P 217)된 결과이다. 그의 예술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러한 성모의 이미지는 신의 음성이라는 메시지의 수용자로서 예술의 종교적, 초월적 이미지를 암시하지만 동시에 이를 잉태하고 생육하는 여성 육체의 생산적 기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예술창조를 임신과 출산의 이미지로 볼 경우 그것은 철저히 여성 또는 여성성의 영역으로서 당연히 남성 예술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프로이트(Freud)의 “남근숭배”가 조이스의 작품에서는 여성의 창조력을 찬미하는 “자궁숭배”로 바뀌며 여성성의 긍정과 수용은 예술적 성취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

여성의 창조력에 대한 남성의 선망은 때로 예술가의 여성화 또는 스스로 여성이 되고자하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해변가의 소녀 에피소드에 나타난 스티븐에 대한 묘사는 일종의 여성 엑스타시를 연상

시킬 뿐 아니라 실제로 수태고지를 받는 성모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Froula 59). 성모가 청각을 통해 신의 음성을 수용하였듯이 스티븐은 “거리의 소음”을 바로 “자신의 고막”을 통해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예술창조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장에서 아직은 미숙한 청년에 불과한 스티븐은 창조의 조건인 여성과 육체 그리고 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과 육체를 부정하며 고대의 장인인 다이달로스(Daedalus)를 정신적 아버지로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성숙에서 육체와 성, 특히 여성에 대한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준다. 라캉(Lacan)의 말대로, 상징계로의 진입, 즉 언어의 획득이 아버지의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 분명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자신만의 예술언어를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의 영역을 향하는 스티븐의 여행을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젊은”(young) 스티븐의 이러한 미숙성은 동시에 예술적 성취에 필요한 육체와 성, 특히 여성성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암시한다. 따라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실상은 예술에서 여성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주장(Froula 40)이 가능하며 이는 사실 조이스의 모든 작품에서 예술 또는 창작이론과 관련하여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킨(Keane)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여성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주요 인물들인 「죽은 자들」의 그레타 콘로이(Gretta Conroy), 『추방자들』(Exiles)의 버사 로완(Bertha Rowan), 해변가의 이름 없는 소녀와 물리, 『피네간의 경야』의 ALP 등은 생명력과 풍요로움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34). 헹케(Henke) 역시 창조적 영감이나 미학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여성이 등장하며 특히 게이브리엘, 스티븐 등 예술가 기질의 남성들에게 여성이 창조적 상상력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44; 77).

이렇듯 예술창조에서 여성 또는 여성성의 강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산력과 함께 예술가의 조건이 양성성(androgyny)에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율리시스』의 스티븐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보다 성숙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예술창조에서 육체와 성 또는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며 나아가 양성성을 예술가의 창조 조건으로 주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도서관 장면에서 드러나는 스티븐의 창작이론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스티븐에게 남성 예술가의 창조성은 여성, 특히 크산티페(Xanthipe), 앤 해

서웨이(Ann Hathaway) 등 의지가 강한 여성들과의 변증적 관계에서 촉발된다(Froula 87). 앤의 부정은 셰익스피어에게 작품의 플롯을 제공했으며 소크라테스(Socrates)는 그의 부인과 산파였던 어머니에게서 “사고를 세상에 내어놓는 법”(U 9.35-36)을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창조력에 대한 논의 후에, “그럼 나의 차례는? 언제?”(U 9.261)라는 스티븐의 독백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여성과의 적극적 관계를 통해 예술창조의 기회를 얻고자하는 바램을 의미한다. 스티븐에게 여성 또는 여성성의 수용은 성숙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며, 이는 예술가의 양성성을 통해 완성된다.

“매일 매일의 경험”을 소재로 “민족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 스티븐의 예술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국 개인 경험의 예술적 승화에 다름 아니다.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학토론에서 스티븐의 셰익스피어론이 전기적 성격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그는 셰익스피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창작간의 연관성 또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 도중 드러나는 스티븐의 내적 독백이 자아비판적이고 아이러니한 어조(Wales 82)인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론은 스티븐 자신의 예술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에게 예술이 “자신의 고막을 자극하는” 소리가 “상상력이라는 자궁에서 육화”하는 것이듯이 스티븐은 자신의 이론을 주변 인물들의 “귀에 쏟아 붓는다”(U 9.465). 그의 셰익스피어론이 자신의 예술적 창조 조건에 대한 토로임을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가 “쏟아 붓고 있는” 이야기는 실상 스티븐 “자신의 고막”을 향하면서 같은 예술가로서 셰익스피어와 자신의 처지의 유사성,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창작조건을 부채를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셰익스피어의 사적 경험과 창작 사이의 연관성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인인 앤(Ann)과의 관계이다. 옥수수 밭에서 의지의 여성인 앤에게 성적 주도권을 넘겨 준 일, 이후 아내의 불륜에 괴로워하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은 호우드에서 물리의 시드케익을 받아먹는 불륜의 수동적인 모습, 보일란(Boylan)과 아내의 불륜에 고통 받는 불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외에도 창작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륜이 삶의 예술가로서 ‘맷참의 수완’(Matcham's Masterstroke)에 못지않은 작품을 구상한다면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품의 플롯을 창조했다. 예를 들어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

가 셰익스피어의 첫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면 아도니스를 찢은 “멧돼지의 어금니”(U 9.45-46)는 앤의 성적 주도권을 암시하며, 이 후 사랑의 “상처를 훔으며” 보낸 치유의 기간은 셰익스피어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임대하는 과정이었다.

“천재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의 실수는 의도된 것으로 그것은 발견의 문이다”(U 9.228-29).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성적 굴욕은 결국 예술창작을 위해 의도된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연출하고 극화시킨다. 『심벌린』(*Cymbeline*)과 『오셀로』(*Othello*)에서 그가 “포주이자 오쟁이진 남편”(U 9.1021)이라는 상반된 성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남녀 양성의 창조적 결합을 예술적 성취의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신 다음으로 많이 창조” 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자신에게 스스로 배우자가 된, 양성성을 가진 천사”(an androgynous angel, being a wife unto himself) (U 9.1052)였기 때문이다.

블룸의 경우에서도 육체와 성은 그의 삶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율리시스』에서 묘사되는 그의 하루 동안의 행적은 온통 육체와 성적 이미지로 가득하며 『율리시스』 각 장의 신체에 대한 비유와 결합하여 더블린이라는 육체를 따라 구불구불 이동하면서 육체의 기능을 직접 구현한다. 실제로 「칼립소」에서 식사와 배변으로 시작된 블룸의 육체의 일정은 「로터스 이터스」(*“Lotus Eaters”*)의 목욕, 「하데스」(*“Hades”*)의 시체, 「나우시카」(*“Nausicaa”*)의 자위행위, 「써시」(*“Circe”*)의 성적 환상, 「이사카」(*“Ithaca”*)의 코코아 마시기와 소변누기에 이어 물리의 침대로 끝나면서 인간의 삶의 물리적 조건을 찬양한다.

인간의 육체적 측면, 특히 소화와 배설에 대한 조이스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비평가들은 그를 배설적 성향 또는 항문고착증세를 가진 작가로 평했지만 실상 이는 『율리시스』에서 “인간에 대한 찬미”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Tindall 43). 인간 존재의 육체적 조건과 일상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분명 조이스 미학의 세속적 성향을 암시하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이미지 또는 “신체 하부”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그의 창작이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여성의 소변보는 소리에 흥분하는 조이스의 모습(Ellmann 448)이 단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특이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잠시 사귀었던 유대인 여성 플라이슈만(Fleishmann)에게 보낸 연애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도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유대인 여성의 자궁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35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신비의 여인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 것도 이 나이 때였습니다. (*Letters* 234)

조이스에게 육체, 특히 여성의 육체는 예술적 영감의 출발점이자 그 영감이 실제 작품으로 구체화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신비의 여인”(Dark Lady)이 셰익스피어의 소넷(Sonnet)들을 잉태하고 출산했듯이 조이스는 플라이슈만의 자궁 속에서 자신의 예술이 잉태되고 육화되기를 바란다. 임신과 출산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스티븐의 예술론도 결국 이러한 조이스의 배설적 창작이론의 직접적인 반영이며 따라서 조이스의 배설강박증을 그의 예술이론과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이스의 육체 이미지가 주로 신체 하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배설과 출산이라는 독특한 기능 때문으로서 이는 불륨의 성적 취향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약간의 오줌 냄새가 풍기는” 콩팥을 즐겨 먹는 그는 카펫을 두드리는 여자의 둔부에서 성욕과 식욕이 뒤섞인 묘한 쾌감을 느낀다(U 4.146-79). 여신상을 보면서 그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도 과연 여신들에게도 항문이 있을까라는 것이며, 귀가 후에는 물리의 둔부에 입을 맞춘 후 태아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잠이 든다. 그런데 조이스의 말대로 물리가 불륨으로 하여금 “영원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여권”(Letters 278)이라면 그 여행은 “대지의 여신”(Gea-Tellus) 물리의 자궁 속에서 생육되고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퓨어포이(Purefoy)부인의 출산, 죽은 아들 루디(Rudy)에 대한 회한, 자신의 성적 불모성 등 하루 종일 불륨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던 성과 출산의 이미지는 여성의 둔부에 대한 집착과 스스로 태아가 되어 재탄생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귀결된다.

물론 불륨의 배설강박증이 여성의 육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성적 불모성에 대한 인식은 「칼립소」에서 세계의 불모성에 대한 안타까움, 「태양신의 황소」(“Oxen of the Sun”)에서 출산과 풍요로움에 대한 찬미, 여성의 “신체 하부”에 대한 관심 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되고자하는 욕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경우 그의 창조물은 예술작품이며 그 창조는 자신의 “신체 하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빈센트 첵(Vincent Cheng)은 「칼립소」의 화장실 장면에서 불륨의 의식 속에 그의 배변과 글을 읽는 행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3). 배변을 묘사한 장면에 글쓰기와 읽기에

대한 조이스의 시각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틴벧”을 읽는 블룸의 의식과 배변과정이 서로 뒤섞여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변/독서를 끝낸 블룸은 직접 작품을 쓰고자하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데, 이는 죽은 아들인 루디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반영이다. 블룸에게 자식을 낳는 것은 예술작품의 창조와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씨시」의 환각 속에서 블룸살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씨 나가는’ 블룸은 직접 어머니가 되어 세계를 개혁할 8명의 자식을 낳는다(U 15.1821-1832).

3. 배설의 미학

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성 담론이 어엿한 비평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배설물 문제가 최후의 금기사항인 듯하다. 배설 또는 배설물 문제는 성과 마찬가지로 인간 신체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문맥에서 정의되고 또 그 사회적 문맥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배설과 배설물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억압과 배척의 문제로 연결되며 배설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는 억압에 대한 풍자와 전복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라블레(Rabelais) 문학의 풍자성이 배설과 성 등 신체 하부에 대한 묘사에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바흐친(Bakhtin)의 라블레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신체 하부는 또한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찬양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는 신체 하부에 대한 언급이 상대에 대한 모욕 외에 탄생, 풍요로움, 재생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Bakhtin 148). 삶의 풍요로움은 삶의 영속성을 의미한다면 이는 재생산을 통한 세대 간의 영속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라블레의 문학이 중세의 신학적, 초월적 세계관에 대한 풍자이자 동시에 인간에 대한 찬가라면 이는 배설과 성이 암시하는 인간과 세계의 순환적 영속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조이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칼립소」에서 블룸의 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는 불모성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의 불모성에 대한 안타까움은 블룸 자신의 성적 불모성과 함께 하루 종일 그의 의식을 지배하며, 블룸으로 하여금 성적 능력의 회복, 삶과 세계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뒷마당의 정원을 가꾸어 그곳에 콩과 상추를 심겠다는 생각(U 482-483)도 불모의 세계를 풍요로움으로 바꾸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의 실현은 일견 생명이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듯한 배설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설물은 생명체의 산물이지만 체외로 배출됨으로써 생명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의미에서 죽음이나 시체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다(Laporte 8). 그러나 조이스의 세계에서 언제나 극단적인 “양극들은 서로 만난다”(U 6.760). “신부의 침대, 출산의 침대”가 동시에 “유령 같은 양초가 켜진 죽음의 침대”(U 3.396)이듯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하데스」의 묘지 장면이 대표적인 예이다.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식 장면이지만 불륜의 의식 속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인 매우 희극적인 연상들이 이어진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기도 하고 관 속의 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한다(U 6.865-68). 불륜의 의식 속에서 묘지는 젊은 과부를 낚기에 좋은 곳으로, “묘지에서 나누는 사랑”은 “쾌락의 양념”(U 6.759)이 곁들여져 더욱 달콤하다. 이와 같이 타나토스와 에로스가 공존하는 묘지에서 삶과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의 두 극단은 서로 만나며, 삶이 항상 죽음의 가능성을 내포하듯이 죽음은 삶의 조건이기도 하다. 사실 죽음의 땅인 묘지는 “시체비료”(corpsemanure)로 인해 어느 곳보다 비옥하다. “죽은 자의 피가 땅 속에 흘러들어 새 생명을 가능케”하기 때문이다(U 6.771).

시체나 배설물 같은 오물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오물의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 자신을 통해 걸어가면서 강도, 유령, 거인, 노인... 을 만나지만 결국 언제나 우리 자신을 만나는”(U 9.1044-1046) 세계, 모든 것이 내포되고 겹치며 상반되는 원리들이 서로 만나는 조이스 문학세계의 특이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라포르트(Laporte)는 배설물의 이중성이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것이 모든 것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것들은 상반된 두 개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우고 말린 것은 비료가 되어 자양분을 제공하고, 악취는 향수가 되며 부패했던 것은 황금이 된다(35).

『율리시스』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서로 겹치며 두 개의 극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배설물을 통해서 본 세계 역시 상반된 원리들이 내포된 상태로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영원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변전과 순환이 작품의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율리시스』와 『피네간의 경야』에 신체 하부의 생리적 기능과 배설의 이미지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포르트는 배설물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인간의 물질적 근거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34), 이는 인간이나 배설물 모두 자연과 세계의 외적 생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배설물은 인간의 산물이지만 인간 역시 자연과 세계의 또 다른 배설물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배설물을 통해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위상과 물질적 존재로서의 한계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물론 배설물이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배설물에 대한 거부와 배척은 청결, 질서 등을 강조하고 강제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력화를 피하며, 개인의 신체와 사적 공간의 개념을 형성하던 근대와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Laporte x). 배설이 암시하는 인간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은 오히려 정신적인 것 또는 성스러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성체(Eucharist)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티븐은 자신의 예술적 창조과정을 성체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하는데 그에게 예술은 “매일 매일의 경험이라는 빵”(P 221)을 먹고 소화시켜 창조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테우스」에서 자신의 소변 소리를 시적 음률로 인식하는 장면(U 3.453-60)은 배설과 예술 간의 유사관계를 암시하며 스티븐의 배설물에 대한 거부감, 그의 예술적 “변비 증세”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기에서 “변비 증세”란 맥나이트(Mcknight)의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그는 스티븐의 예술적 한계와 딜레마 뿐 아니라 예술과 배설 간의 관계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언어를 통해 예술가가 비좁은 공간으로부터 자신을 짜 내고, 자신을 밖으로 불러내어 표현한다고 볼 때, 여기에는 분만과 소화작용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는 셈이다(Mcknight 432, Cheng 87에서 재인용).

그러나 조이스의 육체 예술을 더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은 바로 블룸이다. 예를 들어, 미셀레(Michelet)가 화장실의 악취 속에서 영감을 떠올렸듯이(Laporte 36) 블룸 역시 화장실에서 창작의 욕망을 드러낸다. 게다가 「칼립소」와 「하데스」에서 배설물을 풍요로움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블룸의 모습은 여성의 창조력과 생산성을 찬미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향문고착증, 배설강박증 역

시 삶과 세계의 풍요로움에 대한 회구에 근거함을 암시한다.

『울리시스』의 각 장들이 육체의 생리적 기능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더블린이라는 육체의 내부를 이동하는 블룸의 18시간 동안의 방랑은 인간의 소화과정을 연상시킨다. 식사와 배설로 시작된 블룸의 하루는 더블린 시내 곳곳을 이동하고 귀가 후 물리의 둔부에 입을 맞추며 끝난다. 결국 블룸은 삶의 육체적 과정을 직접 구현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예술작품으로 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손톱을 다듬는 예술가”라는 유명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이스만큼 자신의 개인적 성향을 작품에 직접 드러내는 작가도 드물다. 작품의 에피소드들에 스며들어있는 개인적인 경험들뿐 아니라 스티븐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예술가로서의 시각과 입장을 직접 개진하고 있으며, 블룸의 성적 특이성, 인간의 육체에 비유한 작품의 구조와 신체 하부 이미지 등을 통해 세속성을 지향하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에 드러난 육체와 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조이스의 예술, 특히 그의 창작미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조이스 소설미학의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 하부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에 따르는 부정적 선입견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 육체와 성 문제가 자주 다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조이스 작품들에 나타난 성적 억압이나 예술창작에서 여성성의 긍정적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신체 하부 묘사와 창작미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의 시각 뿐 아니라 조이스의 미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배설 문제는 조이스의 창작이론에서 육체 또는 신체 하부가 보여주는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배설 문제는 최근까지도 흔히 다루지 않았던 육체 관련 담론의 마지막 영역이며 노골적인 만큼 직접적이기도 하다.

(서원대)

인용문헌

- Bakhtin, Mikhail M.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 Iswolsky.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1965.
- Bolt, Sydney. *A Preface to James Joyce*. New York: Longman, 1981.
- Bosinelli, Rosa Maria. "I use his cycles as a trellis': Joyce's Treatment of Vico in *Finnegans Wake*." *Vico and Joyce*. Ed. Donald Philip Vern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123-31.
- Brown, Richard. *James Joyce: A Post-Cultural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92.
- Cheng, Vincent J. "'Goddinpotty':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Excrement." *The Languages of Joyce: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Venice*. Ed. R. M. Bollettieri Bosinelli, et al. Philadelphia an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85-99.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London: Oxford UP, 1982.
- Froula, Christine. *Modernism's Body: Sex, Culture and Joyce*. New York: Columbia UP, 1996.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London: Routledge, 1990.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Penguin Books, 1969.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92.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95.
- _____. *Stephen Hero*. London: Fetcher and Son, 1969.
- _____. *Ulysse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Keane, Patrick J. *Terrible Beauty: Yeats, Joyce, Ireland and the Myth of the Devouring Female*.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8.

- Kenner, Hugh. "Shem the Textman." *The Languages of Joyce: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Venice*. Ed. R. M. Bollettieri Bosinelli, et al. Philadelphia an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145-54.
- Laporte, Dominique. *History of Shit*. Trans. Nadia Benabid and Rodolphe El-khoury. Amherst: MIT Press, 2000.
- Tindall, W. Y. *James Joyce: His Way of Interpreting the World*. London: Charles Scribner's Sons, 1950.
- Wales, Katie. *The Language of James Joyce*. London: Macmillan, 1992.

Abstract**The Secularity of James Joyce's Theory of Writing
in the Images of Body and Sex**

Kang-Hoon Lee

Joyce's open descriptions of the body and sex in his novels like *A Portrait*, *Ulysses*, and *Finnegans Wake* have caused many critical debates among readers and critics including the censure of being pornographic or cloacal. But now they are recognized as essential elements for exploring Joyce's aesthetics and his theory of writing.

Joyce insisted on the values of the bodily and the sexual and regarded them as basic physical conditions of all human beings. This is why so many images of body and sex are scattered throughout his novels. But these images not only testify Joyce's secular attitude on life and art, but also imply his theory of writing. Stephen's aesthetic theories in *A Portrait* and *Ulysses*, for example, heavily depend on the eucharistic and pregnancy-delivery image. Great human body is embodied in the structures of *Dubliners* and *Finnegans Wake*. Each chapter of *Ulysses* implies human bodily functions. And Bloom's interest in the recreative, fertilizing role of the "lower bodily stratum," and his desire for writing in the image of cloacality show it is the images of the body and sex that help Joyce to achieve his "celebration of mankind."

■ **Key words** : body, sex, writing, image, excrement, secularity, creation

(육체, 성, 글쓰기, 이미지, 배설, 세속성, 창조)